

**이데일리**

# 피차이 구글 CEO, 작년 보너스만 `3468억원`...직원연봉 중간값 `1000배`

기사입력 2020-04-25 16:46

**지난해 연봉 약 8억200만원...올해 24.6억으로 ↑**

[이데일리 신중섭 기자] 순다르 피차이(47) 알파벳·구글 최고경영자(CEO)가 지난해 한화로 약 3468억원의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 알파벳 직원 총급여 중간값의 108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.



순다르 피차이 알파벳·구글 CEO (사진=AFP)

24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례 보고서를 발표했다.

알파벳은 피차이 CEO의 상여금이 2억8100만 달러, 한화로는 약 3468억원이라고 밝혔다. 상여금의 대부분은 주식이라고 설명했다.

또 피차이 CEO의 지난해 연봉은 65만 달러(약 8억200만원)였으며 올해 연봉은 200만 달러(24억 6000만원)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.

앞서 피차이 CEO는 구글에 이어 지난해 말 알파벳 CEO도 겸하게 됐다.

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알파벳 이사회는 상여금 지급 시 참고하는 기업의 명단을 일부 조정했다. 넷플릭스, 컴캐스트, 세일스포스를 추가하는 대신 HP와 퀄컴은 제외했다. 명단에는 애플, 아마존, 페이스북도 포함돼있다.

신중섭 (dotori@edaily.co.kr)

네이버에서 '이데일리' 구독하기 ▶

청춘뉴스~ 스냅타임 ▶

< ©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- 무단전재 & 재배포 금지 >

---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18&aid=0004627619>

---